

2100년엔 겨울이 겨우 한달

광주기상청 기후 전망 자료

약 90년 뒤에는 광주·전남의 여름이 현재보다 1.5배 가량 길어지고 반대로 겨울은 3분의 1수준으로 짧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한반도에서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남부에 위치한 광주·전남 지역은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이 이날 내놓은 '기후자료로 본 우리 지역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여름 기간은 115일이지만 96년 뒤인 2100년에는 169일로 54일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겨울은 96일에서 59일 짧아진 37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월28일 여름이 시작됐지만 2100년에는 약 한 달이 빠른 4월28일 하절기가 시작되고, 여름이 끝나는 시기도 더 늦어지게 된다.

기상청은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여름의 시작점, 5도 미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겨울이 시작되는 날로 봤다.

실제 광주·전남 7개 지역의 1970년대와 2000년대의 '계절길이 변화'를 비교한 결과 겨울이 짧고, 여름이 늘어났

다. 광주·전남 겨울 37일 불과 현재보다 59일 줄어든 듯

1970년대 이후 변화 보니 겨울 16일↓ 여름 14일↑

온난화에 홍수·가뭄 심해져 황사도 계절 상관없이 발생

■ 2100년 광주·전남 기후 변화 전망

	2014년	2100년	증감
여름기간	115일	169일	54일 ↑
겨울기간	96일	37일	59일 ↓
여름시작	5월28일	4월28일	

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겨울은 1970년대 100일에서 2000년대 84일로 16일 줄었고, 여름은 109일에서 123일로 14일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고온은 겨울이 87일에서 77일로 10일 줄어들었고, 여름은 106일에서 113일로 7일 증가했다. 여수도 겨울이 81일에서 17일 줄어든 64일로 나타났다, 여름은 115일에서 120일로 5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은 홍수와 함께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최근 10년(2005~2014년)간 연간 평균 강수량은 1420.3mm로 1973~1980년(1346.7

mm) 보다 5.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가을과 봄의 강수량은 5% 감소했다.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돼 홍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봄과 가을은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겨울이 점차 사라지면서 봄에만 발생하던 황사도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1981~2010년)에는 평균 5.2일 발생하던 광주·전남지역 봄 황사는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 4.9일로 감소했다. 반면 최근 10년 연평균 황사발생 일수는 7.1일로 평년(6.2)보다 증가했다. 봄철 불청객인 졸로만 앞섰던 황사가 10~12월에도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상기온은 봄꽃개화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봄을 대표하는 꽃인 벚나무의 경우 1980년대 개화시기가 4월4일이었던 2000년대는 3월29일로 빨라졌고, 개나리는 3월28일에서 3월18일로 10일 정도 일찍 꽃망울을 터트리기도 했다.

광주기상청 장기예보담당인 이혜미 주무관은 "지구온난화는 식목 적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섭씨 6.5도를 기준으로 볼 때 광주·전남은 4월5일이 아닌 3월9~12일 사이가 나무 심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승무원 중 견습 항해사 첫 출소

광주교도소 1년6개월 복역 마쳐

세월호 승무원이 처음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20일 출소했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가 구속 취소돼 이날 새벽 출소했다.

신씨는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는 미결수이지만, 항소심 형기를 채워 출소한 것이다.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 받는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70) 선장과 조타실에 머무르며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세월호 조기장 전모(62)

씨도 조만간 구속 취소로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뗏목 등을 작동시키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에 회부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살 아들 숨지게한 모친·검사 항소 모두 기각

광주교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자신의 아들을 육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아·39)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어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 등 가족들이 잘못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비록 어린 아이의 부모일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

로도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양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3일 장성군에 위치한 부모 집 목욕탕 욕조에 한 살 된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예방법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 앞에서 미세먼지 예방 캠페인을 열고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마스크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왜곡 화난 시민군, 지만원씨 명예훼손 고소

북특수군 허위사실 유포에

박남선씨 등 4명 행동 나서

"진실 밝히려 다시 싸우겠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왜곡한 지만원씨를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당사자들이 검찰에 고소했다. '광수(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지목된 인물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61)씨 등 5·18민주화운동 당사자 4명은 자신들을 북한이 보낸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20일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1980년 당시 시민군이었던 광희성(54)씨, 전주교 광주대학교 원산동성당 주임 신부였던 백용수(2010년 사망) 신부의 조카 성남(60)씨, 계림군에 맞서다 숨진 김인태씨의 아내 심복례(여·72)씨가 박씨와 함께 고소인으로 참여했다.

박씨 등은 지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광수'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지씨는 박씨를 주체사상 이론가이자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이라고 주장했고, 광씨는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을 지낸 권준학, 백 신부는 조선대의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진범, 심씨는 인민군 원수를 지낸 리을설이 여장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박씨는 "35년이 흘렀는데도 5·18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우리를 북한군으로

지목하며 5·18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유포하는 세력과 또 다시 싸우기 위해 우리가 나섰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지씨가 인터넷에서 북한군으로 지목한 5·18 당사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만큼 '북한의 북면부대'라고 지목받은 시민들과 함께 3차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고소를 담당할 임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만원이 변조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만원이 북한특수군의 근거로 활용한 사진들은 '해방 광주' 기간 광주시민이 금남로에 나왔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라며 "지만원이 광주시민을 포괄적으로 모욕한 만큼 공개적으로 사진 속 시민들을 찾아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재단은 21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지씨의 주장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을 전시하는 행사를 열어 지씨로부터 북한군으로 지목받은 시민을 추가로 찾아낼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생 아파트 투신 사망

대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5시17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아파트 화단에 모 대학교 1학년 A(22)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택시기사 B(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인근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A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아파트에 들어간 뒤 4시15분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망 직전 여자친구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문제 등 특별한 투신 사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만취 20대, 흥친 자전거 가격이 놀라 제자리 갔다났지만...



○만취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20대 남성이 흥친 자전거가 너무 고가라는 사실에 놀라 제자리에서 가져다 뒀지만, 그 정면이 CCTV에 포착돼 경찰서행.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주모(23)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자전거 가게 앞에 주차

된 성모(32)씨의 차량에서 1000만원 상당의 고급 MTB자전거를 훔쳤다는 것.

○주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집에 빨리 가고 자전거를 훔쳤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자전거 가격이 무려 1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라 그날 밤 제자리에 가져다 뒀다"며 "제자리에 갔다 뒀는데 절도죄가 성립될지는 몰랐다"고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2015년 광주광역시 남구 무등시장 청년 창업자를 찾습니다

창업된 무등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무등시장 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오니,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2015.10.15(목)~10.29(목) 18:00까지

- 지원내용** 창업교육, 체험정보 운영, 인차로, 인터넷에 정부지원금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컨설팅, 홍보, 마케팅지원, 멘토링 등
- 신청자격**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로서 문화예술·공예 등 분야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만20세 ~ 39세 이하인 자(사업공고일 기준)
- 상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군부도 27주원동
- 지원규모** 청년 10팀 (남구 무등시장 내 10개 점포) / 아이템 : 문화예술·공예 분야, 기타 등
- 우대사항** 문화예술·공예 분야의 창업 아이템
-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015. 10. 30(일) ~ 2015. 11. 3(일)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 2015. 11. 5(일) ~ 2015. 11. 6(일) 개별통지
- 제출서류** 신청서(4부), 창업계획서(4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 접수방법** 무등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사업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메일접수 : cskbyun@paranmail.net (마감일 29일 도착분에 한함) 지원양식 : http://www.mys.co.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처** 무등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 / 전 화 : 062-670-2838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광주대하교 국기관 3층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 :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취업유망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생계획이 수립된 자, 개인회생자, 채무조정 협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재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신청자는 창업가능 대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신청자는 창업가능 대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신청자는 창업가능 대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신청자는 창업가능 대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신청자는 창업가능 대상

주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 광주남구청
주관 무등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

당신의 가장! 절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Special atmosphere. Special taste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맥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수비드류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